

社說

포천시 정책제안 세미나

지난 4월과 5월 산정호수 한 화콘도에서 2007 포천시 정책 제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포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의 총장과 학장,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참여했다. 물론 포천시 간부공무원들과 정책자문위원들이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

지역의 미래방향 설정을 하는데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포천시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이란 제안되었다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10년 혹은 20년후 포천시를 바라보면서 지역발전의 큰 틀을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포천시처럼 한 지역에 3개의 대학이 있는 도시는 많지 않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포천시는 축복받는 도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치경영 분야 6건, 문화복지분야 6건, 산업환경분야 8건, 도시건설분야 6건 등 총 26건의 정책이 제시됐다. 위에서 지적한 분야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제시된 정책중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정책의 특징이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5번째를 맞는 정책세미나까지 포함해 제안된 정책은 총 100여건에 이른다. 제안된 정책 가운데는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포천시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제안된 정책들은 검토과정을 거친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키거나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정책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모 정책자문위원의 전언이다.

최근 포천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수많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제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시된 정책들을 분석하고 추진할 시기 등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약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제시된 수많은 정책들을 구체화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야말로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포천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발전 계획에 반영 혹은 단기계획 반영 등으로 분류하고 예산확보 가능성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포천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지만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은 본래 매년 반복되는 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시대 혹은 지방경쟁시대 대변되는 현대행정업은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창조가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는 제안된 정책들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NCW 구현을 위한 지상전력 발전방향

한나라당 고조홍 국회의원 육군전력방향 세미나

고조홍 국회의원(포천·연천/국방위원회)은 9월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 (NCW) 구현을 위한 지상전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육군 전력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총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지상군 발전방향을 주제로 미래 NCW 구현을 위한 지상전력 발전방향을 다루었으며, 2부에서는 사단 능력을 중심으로 미래 지상전력 건설비용 재원확보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분석했다.

고조홍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육군 발전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부사관 근속승진제도'의 통과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후속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육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사관들이 육군 전력향상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군가 산정제도'에 대해서도 "의무부무라

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우리 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일정부분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한다"면서 "동법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육군 관계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육군의 '국방 개혁 2020'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군으로서 관심에 모아지는 근대의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정보화 시대의 첨단과학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가져왔다고 평가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조홍 국회의원은 9월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 구현을 위한 지상전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육군전력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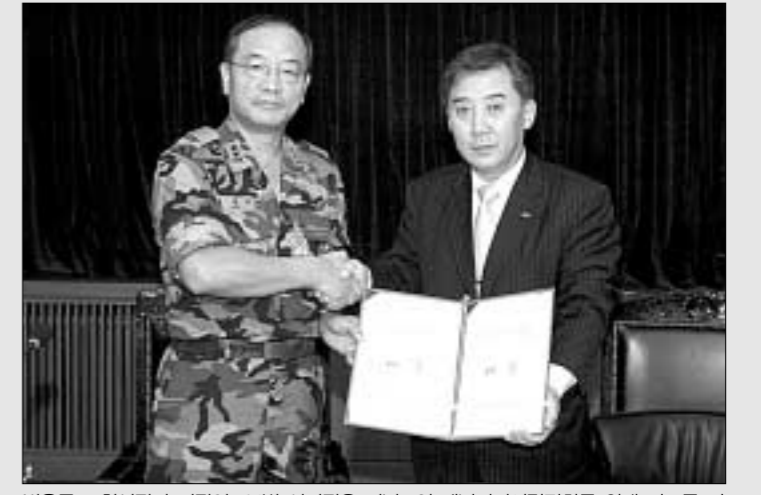
포천시-8사단 재난발생 대비 협약체결

지역재난 민관 협력 신속대처 피해 최소화

포천시는 5일 8사단 회의실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김광영 8보병 사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관리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관·군 지역재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재난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됐다. 이 협약체결로 선진화된 새로운 재난대비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어 재난으로 안전한 포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광영 8보병 사단장은 지난 5일 재난관리역량강화를 위해 관·군 지역재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41명의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

포천경찰서, 고품격 교통문화 정착 노력



포천경찰서는 8월29일 오후 3시 포천경찰서 4층 강당에서 서장, 각 과장, 각 지구대(파출소)장, 녹색어머니 연합회 41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8월 29일 오후 3시 포천경찰서 4층 강당에서 서장, 각 과장, 각 지구대(파출소)장, 녹색어머니 연합회 41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박윤국 포천시장, 김영자 포천시의회 의원, 배옥희 연천군녹색어머니회 등 참석하여 발대식을 축하해 주었다.

특히, 이날 김귀찬 포천경찰서장은 "교통안전 교통경찰을 대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역할을 충실히 한 녹색어머니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고품격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녹색어머니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백운군 어린이 놀이터 부지 기부체납

농민으로 산업포장 등 농업관련 58회 표창수상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적비를 세워주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포천시 동 교통 마을회관 앞에는 용감 백운군(69세·사 진) 선생 공적비 2개가 세워져 있다. 그중 하나는 2004년 농협중앙회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면서 세웠다. 그 옆에는 2005년 포천시장이 세웠다.

백운군 선생은 17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있는 사람이다. 그는 고향에서 살면서 유리온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의 달인이다. 26세부터 48세까지는 농촌운동을 하면서 산업포장을 비롯해 각종 표창과 감사패 등 경력만 해도 58회를 수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6년동안 새농민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산증인이다. 백운군 선생은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현재도 10대 조상까지 매년 5번씩 금초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교3통 마을회관 앞 토지 85평을 포천시에 기부체납하면서 이곳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했다. 놀이터를 조성하면서 부지의 기부체납에도 놀이기구나 뒷산집은 손수 마무리했다고 한다. 물론 혼자

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 있었지만, 토지를 기부체납 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취한 조치라고 한다. 백운군 선생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 또한 그는 놀이터 한쪽에 白洗亭(백세정)이라는 정자를 건설했다. 백세정이라는 말은 '하얗게 마음을 씻고 머무는 자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머무는 사람들 마음 깨끗이 갖자는 뜻에서 명명했다고 한다. 또 백 선생은 동교3통 마을회관 앞에 마을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정자장을 정자로만 들였다. 물론 자신의 토지 위에 170여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비나 눈을 피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백운군 선생은 포천출신으로 의정부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한때는 의정부에 7개의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어려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9남매의 형제 자매가 있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돕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백운군 선생은 풍수지리에 남다른 조예를 가지고 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묘지 묘자리이나 이진호 전 포천군수 묘지리, 박윤국 포천시장 묘지 묘지리 등 수많은 묘지리를 선택해 준 바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혁신 선도 위한 무궁화포럼

포천경찰서, 130여명 전직원 대상으로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8월 30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선도를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무궁화포럼은 ▶혁신동영상 시청 ▶각 기능별 혁신업무 추진사항 보고 ▶혁신선도를 위한 경찰서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혁신동영상은 이천경찰서

에서 제작한 처칠과 히틀러를 비교한 '두 명의 리더 이야기'를 시청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쉽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귀찬 서장은 부임 후 2달간의 포천 생활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언급하며 ▶주거지에 대한 침입절도 ▶출퇴근 시 43국도 교통정체 등 2가지 사항에 대해 각 기능별 특단의 관리대



포천경찰서는 8월30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선도를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책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치안과 쾌적한 교통문화정착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로동: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국장김영복
광고접수 (031)542-9888	인쇄인김규석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요강을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8월 30일 ~ 9월 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7.8.30 포천신문 제387호 발행
 2007.9.10 포천신문 제388호 발행
 2007.9.20 포천신문 제389호 발행예정